

<2등>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~~006~~ 1

大學	成均館大學	學科	韓國語	學年	3	姓名 (한자)	이민재	(한글)	기아비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눔
시간이 시간만큼 쌓입니다. 하지만 이 시간
감에 다양한 색을 칠하면 한 편으로 눈
경험이 될 수도 있고 한 편으로 눈 기억
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제한 경험, 소중한
기억... 우리 눈 이것들을 통해 시 인생 문
명 삼히 배우고 있습니다. 한 조각 한 조각
이 합쳐져서 생명이 됩니다. 나에게도 한
조각의, 그렇지 않으면 공짜 같음이 소중한 경
험이 있어 앞으로 걸어갈 내 생애를
환히 비추 주고 있습니다.
그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
입니다. 방송국에서 일하시느라 마저씨의 초
청을 받아 한 대화 프로그램으로
참석했다. 바로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너무
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. 나눔이
가능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 뿐
마니라 그의 취고 표현으로 눈 정신과
마음을 나눔과 나눔 것은...
프로그램 음악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
한 소년의 환한 모습이 나타났다. 그의
사진은 한 장씩 한 장씩 차지나가면서
꼭 "비소"라는 영화처럼 사람의 마음을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~~100~~ 2

大學	成均館大學	學科	韓國語	學年	3	姓名 (한자)	紀元哲	(한글)	기마비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때 갖 하 게 했 다. 천 천 히 권 러 사 자 은 흑
 백 사 자 은 로 변 했 고 " 빛 나 는 생 명 " 이 가
 는 공 자 가 밝 게 드 러 냈 다. 화 변 도 여 기
 시 범 측 었 다. 이 때 불 루 이 커 졌 고 문
 스 튜 디 오 가 밝 아 졌 다. 이 변 프 로 의 주
 인 공 은 바 로 화 변 에 서 나 문 소 년 이 가 고
 사 회 자 는 많 했 다. 하 지 만 사 연 으 로 현 장
 에 작 점 나 문 수 없 어 서 그 분 인 대
 신 어 머 님 라 한 특 별 한 여 자 소 님 이
 오 셴 다. 어 머 님 의 언 국 은 북 드 러 워 보 였
 지 만 원 지 스펙 트럼 을 주 었 다. " 오 늘
 은 변 지 여 러 분 들 게 이 소 년 의 감 동
 적 인 이 야 기 를 소 재 로 만 들 단 편 영 화
 는 보 여 드 리 겠 습 니 다. " 가 고 소 회 자 가
 많 했 다.
 무 지 밝 은 아 침 이 었 다. X X 대 학 4 학
 년 학 생 인 이 남 학 생 은 평 일 처 럼 아 침
 을 먹 고 학 교 에 가 러 던 참 에 어 머 님 에
 게 불 렸 다. 오 늘 니 생 일 화 이 가 고, 일 직
 줄 마 오 가 고 어 머 님 은 소 년 하 데 당 복 하 셴
 다. 어 머 님 의 많 은 드 러 소 년 은 신 미
 나 시 나 갔 다. 하 루 가 너 복 긴 것 같 았
 다. 기 다 리 시 고 또 기 다 리 시 고 드 러 어
 아 톨 이 줄 마 오 시 간 이 되 었 다. 어 머 님 은
 사 랑 을 담 아 정 성 겹 밥 상 을 차 리 셴 다.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3

大學	成均館大學	學科	韓國語	學年	3	姓名 (한자)	紀平非	(한글)	기마비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그리고 머리에 준비한 예쁜 제이크 위에
의 22개 초록 뱀 혀 높고 아득의 기쁨
표정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행복함 미소
그때였다.
반 시간... 한 시간... 두 시간... 아
무리 기다려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고
어머님은 걱정하시기 시작했다. 이때 전
화벨이 울렸다. 고향 전화국 댁은 어
머님은 무슨 일에 늦었는지 얼굴이
감자기 같았다. 잠깐 멍하니 있다가 어
머님은 왓슨 햄을 다해 뱀으로 달아가
셨다. 병원에서 묻 전화였는데 소년이
고통 사과를 당해 죽었다고 말했다.
정말 청천벽력이었다. 하늘도 이 애를
한 사상을 알았는지 감자기 큰 비가
내리기 시작했다. 문득 뱀이 비에 젖었지
만 어머니님은 낚시어가 춤다능 것을 하
나도 느끼지 못하셨다. 왜냐하면 마음의
추움속에 비하면 뱀의 추움은 아무것도
아니었기 때문이다.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
님에게 소년이 명안식에 왔다고 말했다
어머님은 조용히 누워 왓슨 마른 보
시면서 울지 않으셨다. "선생님, 우리
아득 지공 자고 있었어요. 하루 종일 공
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공 자고 있었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4

大學	成均館大學	學科	國語學	學年	3	姓名 (한자)	이재현	(한글)	기아비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어 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? 오늘 이 애 의 22
 살 생 일 이 에 요. 아직 엄마한테서 생 일
 축하한 다 는 말도 못 들었 는 데 다 큰 곳
 에 전 대 로 안 갔 거 예 요. 애 가 지 금
 자 고 있 어 요. 자 고 있 는 거 예 요... " 흐
 는 감 에 가 까 이 편 편 불 소 기 로 말 씀 하 신
 어 머 님 은 감 자 기 무 가 족 생 각 나 신 것
 이 소 년 을 품 속 에 안 으 셔 다. " 여 기 서
 자 별 안 돼. 여 기 가 너 무 추 우 니 감 기 에
 걸 리 별 어 뻑 돼. 엄마 가 안 아 줄 게. 그 렸
 덩 추 울 거 야. " 이 때 의 사 선생 님 은 소
 녀 의 유 물 을 가져 왔 다. 작은 상자 에 예
 별 편 지 와 편 지 가 있 었 다. " 엄마, 저
 오늘 장 학 금 을 받았 어 요. 엄마 에 게 뭘
 사 드 려 야 할 것 같 아 서 이 편 지 를
 샀 어 요. 저 오늘 22 살 이 되 었 는 데 곧
 졸 업 할 거 예 요. 저 를 이 결 계 건 강 하 게
 키 워 주 셔 서 고 바 워 요. " 아 들 의 금 씨 를
 보 고 어 머 님 은 더 이 상 참 을 수 가 없
 어 서 9 월 을 더 떠 났 다.
 영 화 가 끝 났 다. 나 를 포 함 한 모 든 관
 중 들 은 다 눈 가 가 촉 촉 히 절 었 다. 어 머
 님 은 목 이 메 어 잠 시 뺨 을 잊 지 못 했
 지 만 드 디 어 섹 섹 한 보 습 으 로 관 중 들 을
 흥 해 그 이 후 에 박 생 한 악 을 애 기 해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5

大學	成均館大學	學科	韓契國語	學年	3	姓名 (한자)	許智孝	(한글)	기아비
----	-------	----	-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주었다. 소년이 죽은 그 날 밤에 어머니
 는 의사 선생님을 한테서 한 통의 서를 받
 으셨다. 그 통의 서는 소년이 생전에 서
 명한 "장기 기증 통의 서" 이었다. 통의 서
 에는 "내가 죽은 후 내 각 뼈 마디를 기증
 한다." 는 글이 써 있었었다.
 여기까지 듣고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
 람들은 비로소 그 여자 손님을 바로
 소년의 각 뼈 마디를 받아 다시 광명을 복
 수 있게 된 사람이라 눈 사실을 알게
 되었었다. 어머니는 일찍 죽은 아들을 많
 이 원망하셨지만 또 자기의 착한 아들
 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. 소년
 의 생명은 다른 식으로 계속 연장되고
 있었었다.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흥
 해시켜서 의연히 이 아름다운 세상, 이 세
 상에서 그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복
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. 소년이 죽지 않았
 다. 그의 심장은 계속 튼튼하게 뛰고
 있었었다. 여자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고
 어머니는 여자들 보고 계셨다. 여자는
 눈물을 흘리기면서 어머니를 향해 부르너
 운 목소리로 "어머니" 이라고 불렀다. 그
 때 내가 앞섰다. 소년은 여자강 나 누는
 것은 심장 뱀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6

大學	고려대학교	學科	한국어	學年	3	姓名 (한자)	이재현	(한글)	기아비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100

200

300

400

500

진심을 담아 왔는데, 진정한 정신도 있었
 다.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벼락을 보았다.
 그 벼락을 다듬어 아니가 바로 스코틀랜드 시
 보였던 소년의 따뜻한 눈빛이었다.
 집에 돌아간 후에 나는 어머니한테
 이 사실을 말씀드렸다. 그리고 나에게
 준 18살 생일 선물로 나도 장미 기증
 동의서에 서명하고 싶다고 어머니하고
 상의했다. 중국 사람을 환영하는 해시 아
 시아 사람들의 관념으로 사람이 죽은
 후 육체가 부활한다면 길하지 않다고
 생각하기 때문에 표결까지 어머니는 동
 의하지 않았었다. 비록 동의는 받지 못
 했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고
 오히려 소년한테서 배운 착한 마음과 잠
 나눔의 진정한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
 겠다.
 예전에 한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
 은 적이 있다. "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
 아니까 이 세상에 있을 것이 다 있다."
 이제 나도 이 말의 깊은 뜻을 어느
 정도 알게 되었다. 생명은 그 실체가
 없어져도 정신만 남아 있을 뿐 길이
 또한 영원히 빛나는 것이다. 다른 사람하
 고 소중한 진정한 사람을 나누는 것도

제 2회 成均 한글 백일장

No. 7

大學	天津師範大學	學科	韓國語	學年	3	姓名 (한자)	이근재	(한글)	기아비
----	--------	----	-----	----	---	---------	-----	------	-----

[illegible]